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등록번호 서울다06400(1988년 2월 15일 창간 격주간)
발행인 김성현 | **발행처** 재단법인 기독교베뢰아아카데미 진흥재단
편집 베뢰아센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예수내구주

JESUS MY SAVIOUR

2016. 7. 10. 제682호



최순남 집사(1945년 생)는 성락교회 신도림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어느 날, 시집 간 큰 딸이 감기에 걸려 열이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처방을 잘하는 동네 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어도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아닌가 싶어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딸의 심장판막에 작은 구멍이 생겨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딸아이의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속한 예배당의 성도들도 딸아이의 치유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딸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퇴원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밤에 딸아이는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고 다시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잘 마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재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뇌의 핏줄이 터져 뇌졸중이 발생한 것입니다. 뇌의 이상으로 딸아이는 얼굴 마비 증세와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딸아이가 살 확률은 1퍼센트 정도라고 했습니다. 심장이식 수술 직후 진행하는 뇌수술이라 지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행(血行)을 차단시킨 후 뇌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할지 여부를 물었고, 사위는 1퍼센트의 생존 확률을 기대하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수술했음에도 딸아이는 깨어나지 못했고 코에 호흡기를 낀 채 기계로 호흡하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딸아이를 보니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가 죽는다면 낙원에 가서 쉬지도 못할 것이고 엄마 없이 남겨질 세 살 된 손녀를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살아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면회 시간에 맞춰 중환자실에 가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딸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채 기계를 통해 겨우 호흡을 하고 있지만, 저는 딸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듣도록 복음을 전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한 지 9일째 되던 날, 저는 딸의 면회 시간을 기다리며 성경책을 펼쳐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은 말씀대로 저는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축사(逐邪.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신 마비 상태였던 딸아이가 눈꺼풀을 살짝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어머!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날 면회시간에는 전날보다 더 힘있게 눈꺼풀을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몸은 점차 회복되었고 눈동자는 점점 검은색을 찾아가며 생기를 띠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저를 알아보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딸아이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은수야, 와라"라고 불렀지만 따라가지 않았고, 그 후 "어머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딸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성현 목사 성락교회 감독

임마누엘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 1:18~25)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 중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라는 말씀입니다. 이천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신분까지 모두 바꾸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예언은 그가 오시기 훨씬 전부터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10)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의 어떤 버전에 '계절이 오면 그 정해진 시간에'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버전에는 '봄이 오면 그 정해진 시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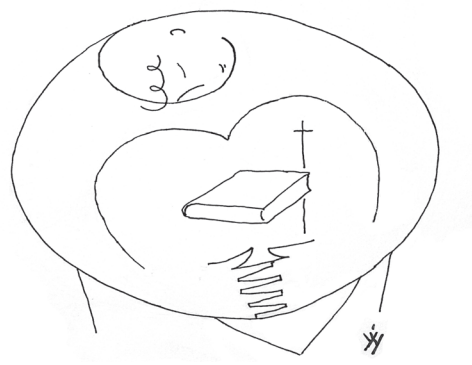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봄을 알리셨습니다. 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꽃이 피는 것을 통해 봄의 도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생긴다는 불가능한 일이 실현된다면 내가 너의 집에 왔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한 경륜에 따라 전능자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주신 작은 단위의 약속이 완성된 것이며 온 인류를 향해 봄의 도래가 예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오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말씀, 즉 영입니다. 영이 육신이 되신 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는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인류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셨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육신을 찢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성도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도 된 자신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육체는 흙에서 온 것이므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낙원에서 자고 있던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로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고전 15:51~53). 그런데 주님은 어느 순간에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셨지만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등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동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수천 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인가 실상이 나타나리라는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신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16~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도 안에 거하셔야 성도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 세 명이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황금은 오래전부터 왕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상징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마구간에 계신 예수께 바친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유향은 당시 부유층이 사용하던 문화용품으로 특히 신을 섬기는 의식을 거행할 때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향을 예수께 드린 것은 '당신이 우리의 위로자이며 평강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몰약은 당시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습니다. 몰약에는 항생이나 소독,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몰약을 드리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삶과 문화와 영화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이는 곧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를 갖자

주님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실 때 비로소 그 구원이 온전해집니다. 성도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나 예루살렘의 무덤을 찾아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믿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시편 24편 8절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며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미리 암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를 환영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지극히 부족한 자였지만 예수께서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보물에 마음이 빼앗겨 임마누엘의 특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려는 꿈으로 심령을 채우며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을 물리쳐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月山 이야기

인연

아내와 결혼하여 2년쯤 되었을 때다. 아내는 무심코 자기의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기 오빠의 후배가 의사인데 오빠를 통해 청혼이 왔으나, 이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내 얼굴이 떠오르더란 것이다.

그때 나는 아직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고 그녀를 만난 적도 없었을 때였다. 아내는 다시 기도하면서 '나의 배필이 될 남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두 번째 환상으로도 내가 떠오르더란 것이다. 그리하여 오빠를 통해 청혼했다는 그 젊은 의사에게는 확답을 보류하고 있을 2년 뒤에 내가 교회에 나왔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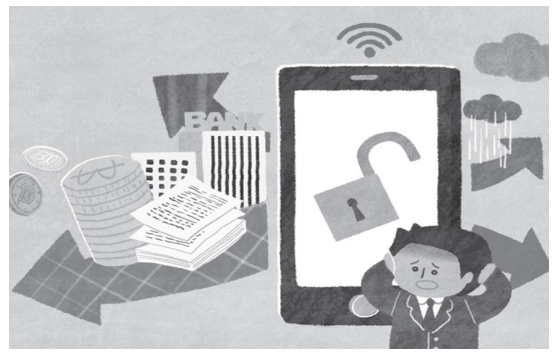
그때 처음 나를 보는 순간 충격도 받았다지만, 그 의사와 이 촌놈은 너무나 차이가 나더란다. 외모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번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은 당신의 아내 된 것을 퍽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래도 남자라서 그런지 그 후 그 말이 가끔씩 생각이 났다. 이는 아마 질투일지도 모른다. 내게도 질투가…. 질투는 마음을 비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인간은 이와 같이 만나고 헤어지고, 기억에 남기기 마련인가보다. 그런데 어쩌자고 주님을 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죄가 아닐는지. -월산(月山) 수필집 『님 앞에 엎드려』 중



우리 사회 엿보기

"개인정보 노출의 대비법"



인터넷 검색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이 빈번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원본을 삭제해도 한동안 검색이 되는 '저장된 페이지'가 골칫거리다.

지난 2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 엔진은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크롤러(Crawler)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이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내놓는다. 한번 수집된 정보는 캐시(Cache), 즉 저장된 페이지 형태로 남는다. 웹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에 의해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이 검색을 통해 계속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원본을 삭제해야 한다. 웹 마스터를 통해 원본을 삭제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자필 서명 이미지 등의 정보에 한해 당사자가 구글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원본 삭제 후 캐시에 의한 검색은 구글에 긴급 삭제 요청을 해 막을 수 있다. '구글 웹 마스터 도움말 센터'(http://www.google.com/support/webmasters/?hl=ko)를 통해 가능하다. 캐시 검색을 막지 않으면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검색 결과에 개인정보가 한동안 남아있게 된다.

예술로 이야기 하는 성경

영화 "불의 전차"



많은 사람의 관심이 오는 8월 5일에 개최되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향해 있다. 이 영향 때문인지 3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불의 전차"가 현재 몇몇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다.

영화 "불의 전차"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육상선수 에릭 리델과 해럴드 에이브럼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에릭은 육상 100미터 선수였지만 예선 경기가 주일이라는 이유로 출전을 포기하고, 육상 400미터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다. 에릭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동기는 자신을 빠르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신의 달란트로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는 순수함에서 비롯된다.

에릭은 금메달을 딴 직후에 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선교활동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에서 순교했다. 에릭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를 묻고 비문에 다음과 같이 새겼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위성 예배 안내

서울지역
강 남 070)7300-8260
강 동 070)7300-8270
강 북 070)7300-8290
강 서 070)7300-8300
광 명 070)7300-8330
금 천 070)7300-8370
노 원 070)7300-8400
동 부 070)7300-8510
서대문 070)7300-8580

경기지역
가 평 070)7300-8250
구 리 070)7300-8350
김 포 031)998-0191
남 부 070)7300-8380
남인천 070)7300-8390
능 곡 070)7300-8441
덕 정 070)7300-8429
인 천 070)7300-8730
부 천 070)7300-8500
부 평 070)7300-8540
분 당 070)7300-8550
서인천 070)7300-8600
서 정 070)7300-8640
성 남 070)7300-8610
수 원 070)7300-8650
시 흥 070)7300-8660
안 산 070)7300-8621
예 일 070)7300-8800
원 당 070)7300-8700
의정부 070)7300-8710
이 천 070)7300-8720
일 산 070)7300-8743
통일동산 070)7300-8791
평 택 070)7300-8830
포 천 070)7300-8820

강원지역
강 릉 070)7300-8280
원 주 070)7300-8840
춘 천 070)7300-8780

영남지역
대 구 070)7300-8410
부 산 070)7300-8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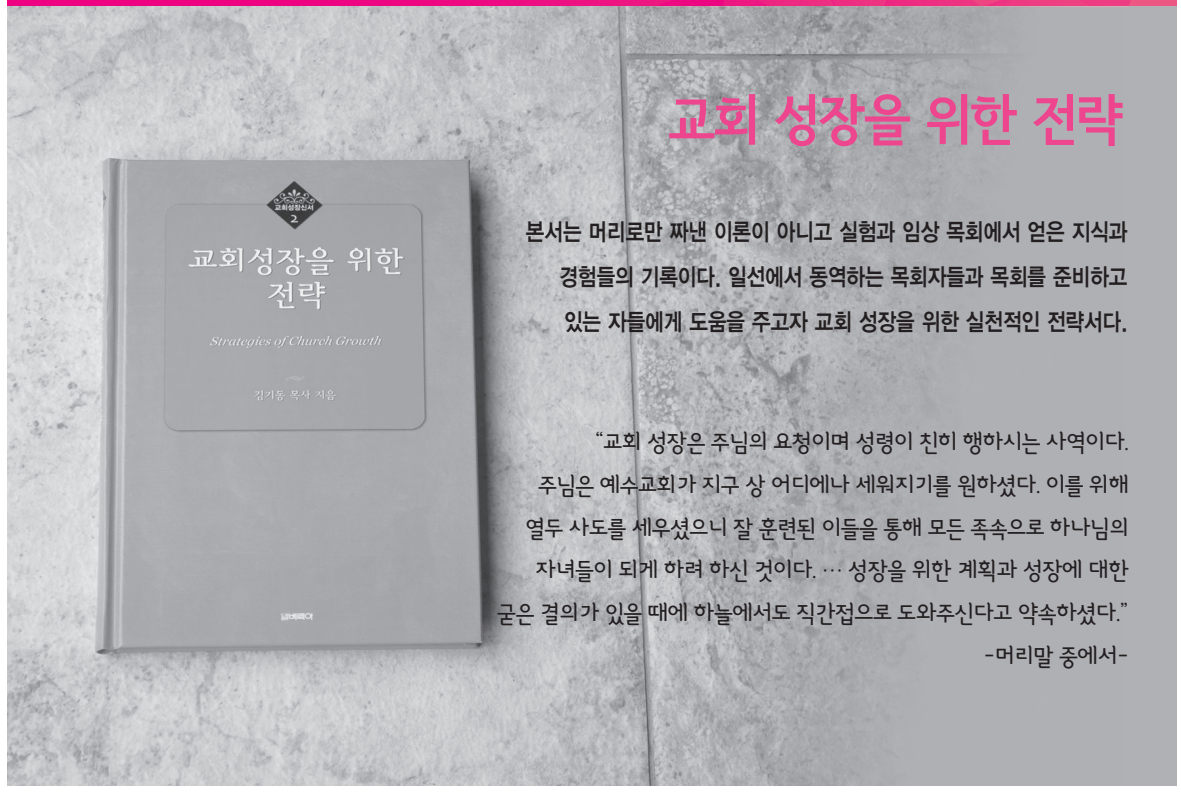
충청지역
대 전 070)7300-8460
서대전 070)7300-8590
몽산포 070)7300-8491
예 산 070)7300-8680
천 안 070)7300-8770
청 풍 043)648-3965

호남지역
광 주 070)7300-8340
군 산 070)7300-8360

제주지역
제 주 070)7300-8760

교단 교회
구 미 054)455-9527
김 천 054)431-4894
대 천 041)936-1875
동두천 031)862-7082
창 원 010-5523-3856
전주세계로 010)6263-0191
청 주 043)262-9022~3
파주성락 031)943-0662
포항성락 054)252-2284
서울새벽 02)467-5964~5

BOOK STORY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

본서는 머리로만 짜낸 이론이 아니고 실험과 임상 목회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의 기록이다. 일선에서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회 성장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서다.

"교회 성장은 주님의 요청이며 성령이 친히 행하시는 사역이다. 주님은 예수교회가 지구 상 어디에나 세워지기를 원하셨다. 이를 위해 열두 사도를 세우셨으니 잘 훈련된 이들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 성장을 위한 계획과 성장에 대한 굳은 결의가 있을 때에 하늘에서도 직간접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머리말 중에서-

무화과나무 아래

성경의 힘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A. Lincoln, 1809~1865)의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켄터키의 목수였다. 그의 어머니는 명망 있는 귀족 집안의 조카딸로 매우 현숙한 여인이었다. 링컨은 이런 부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나 정직하고 영리하게 성장했다.

링컨의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학교에 보낼 마음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다. 그녀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다. 당시 그 근처에는 학교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학교가 그의 집에서 14km 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겨우 읽고 쓰는 것만 가르치는 교습소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를 안 링컨의 어머니는 남편을 설득해 링컨과 누이를 그곳에 다니게 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어린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단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을 펴서 읽어주곤 했다.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다.

어머니의 교육과 성경은 링컨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마음 깊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체험했다. 링컨이 아홉 살 무렵에 그의 어머니는 풍토병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임종의 자리에서 어린 두 자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한번은 정부 요직에 추천 받아온 한 사람을 잠깐 만나본 후에 딱지를 놓은 적이 있다. 이유를 묻는 보좌관의 질문에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사람은 성경을 한 구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仁〉

CARTOON



그는 죽음으로 인류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셨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화를 걸면 희망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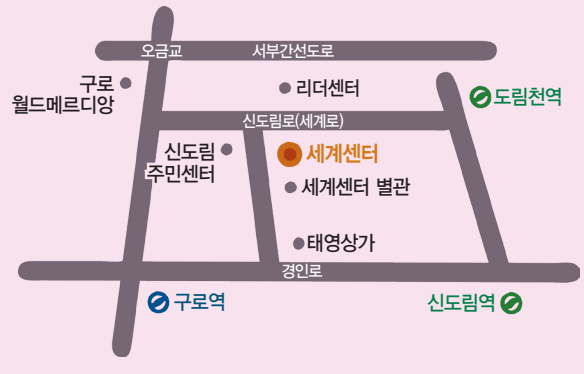
-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일 오후 2시 30분까지 토, 공휴일 제외
- 02-831-1720~2, 070-7300-6767~9
- www.sungrak-a.or.kr

SBC 성락인터넷방송

- 월~금 12:00~13:00 | 주일 11:00~14:00
- http://radio.sungrak.or.kr

예배시간 및 장소 안내

주 일 예 배	1부 · 오전 6:50(신길본당) 2부 · 오전 9:00(신길본당) (위성중계) 3부 · 오전 11:00(세계센터) (위성중계) 연합 · 오후 3:00(세계센터)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신길본당, 세계센터)
수 요 예 배	오후 7:30(기독청년선교회관)
금요철야기도회	오후 9:00(신길본당)
베뢰아신유성회(화)	오후 2:00(복음관 7층)
(목)	오전 10:30(복음관 7층)



TEL: 070-7300-6200, 630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56-24

- **정 류 장:** 구로역 태영프라자(태영상가)
  간선버스: 160 260 503 600 660
  좌석버스: 301 320 510 905
  지선버스: 5614 6513 6637 6640
  일반버스: 11-1 11-2 88 92
- **지 하 철:** 신도림역 1번 출구, 구로역 2번 출구, 도림천역 1번 출구에서 5~10분 거리

구독안내 070-7300-6708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락침례교회 | **우송후원금(1년)** 7,000원
국민은행 765-01-0033-508 | **우리은행** 294-000511-01-078
개척교회에 『예수내구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